

지역 소식통

정읍시, 22일 제16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정읍시가 오는 22일 일요일 정읍 천변어린이체육구장 일대에서 '오픈 정읍, 평생학습에 들뜨다!'를 주제로 제16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2008년 7월 28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2022년까지 15회를 운영한 행사다. 평생학습동아리 등 유관 기관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해 온 시민들이 평소 갖고 있던 배운 습성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평생 학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립극단 식전공연 및 개막식 △시가지 동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댄스 등 19개 팀의 무대발표회 △무지개동아리 등 32개 단체의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배아로 풍선미술, 버블체험, 파충류체험, 전통놀이체험을 운영해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촌지도사업 2023년 종합평가회 성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18일 시범사업 추진 농가와 관심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종합평가회는 농촌지도사업 분야별 결과 평가와 성과 공유를 통해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과 정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지도사업 9개 분야 성과발표와 14개 사업에 대한 화관전시, 농촌지도사업 추진 동영상 시청, 정읍지향 융복합 사업, 미래농업 스마트팜 홍보전시, 숙지향차 시음 등이 진행돼 참석한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은 농촌이 농촌"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논의 '시민 목소리' 제언의 시간

정읍시, 동학군 최초·최대 승리 황토현전적 상징성 강화 '박차'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최대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의 가치를 부각하고 그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정비계획은 지난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群像) 완공 이후 공간구성의 부조화가 발생된 두 지역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의미 부각을 위해 마련됐다. 또 황토현전적이 지닌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유교식 추모 공간 기능을 탈피해 전승지로서의 혁명적 분위가 연출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전문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

를 통해 황토현전적의 단기(2년)·중기(5년)·장기(10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전적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을 확보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사적분과위원장·위원, 정읍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용역기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표 후, 황토현전적과 기념공원의 공간 재구성과 연계 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견으로는 △전승지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 조성과 건물배치 마련 △동학농민혁명 최초·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상

징성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을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황토현전적과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전적지와 기념공원이 조화롭게 구성돼 정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자 중심 도시다. 핵심 유적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만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혁명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의견 등은 수정·보완을 통해 최종보고회 때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제2차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공감·소통창구 수행

정읍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시민소통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보류, 외국인 근로자 생활편의 시설 지원 폐기 등 5가지 사업 변경(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시와 소통위가 상호작용하는 등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간부진과 소통위원들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정 적용 방향을 모색했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시민들의 지혜가 잘 녹아들어 있는 요구사항에 철저히 분석하고 적용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 주요정책 현안사업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시민의견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행안부 찾아 특별교부세 건의활동

판소리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등 지역현안·재난안전 수요 10건 건의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가 18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현안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는 행정안전부 진선주 교부세과장과 이음범 재난관리정책과장을 만나 각각 지역현안 수요 5건과 재난안전 수요 5건 등 총 10건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현안 사업은 △고창판소리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생태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스포츠타운 내 풋살장 조성공사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 5건이다. 재난안전 사업은 △상하천 용두배수갑문 보강 △고수농공단지 노후 옹벽 정비 △상하 기산소하천 정비 △갈곡천 지방하천 준설사업 △해리면 명고제 농로 보수보강 사업 등 5건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

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상반기에는 △고창농악전승관 증축(10억원) △고안돌박물관 미디어아트 체험존 구축사업(6억원) △흥덕 송내소하천 정비사업(7억원) 등 3개 사업에 23억원을 확보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당당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명식기자

## 부안군,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부안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 비산면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면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등이며 토사·시멘트 운반차량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안지역 비산면지 발생사업장은 현재 약 140여개소로 도로화·포장공사 등 특별관리사업장과 그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장 주거지 인근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세류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 내 도로살수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면지 저감조치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점검결과 비산면지 저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김재경씨 제3대 일일명예 청년군수 위촉

고창군이 18일 제8대 일일 명예 청년군수로 김재경(26·고창청년벤처스 총무부 부팀장)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명예 청년군수는 이날 심덕섭 군수와 위촉식 후 신활력경제정책관과 축산과에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김재경 청년군수는 민선8기 고창군의 대표청년공약(청년 농림축수산업 기업승계 활성화, 청년 주택공급확대 및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창업플러스터 조성 등)과 주요 청년정책(청년정책거버넌스 추진, 청년 크리에이터 고창 한달살이 등)의 추진



상황 및 2024년도 시책·역점 사업을 점검했다. 축산과에서 평소 관심있는 축산 관련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살피고 업무현장을 경험했다. 고창군은 내년도 시행될 명예 청

년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참여와 소통 방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김재경 제3대 명예 청년군수는 "고창군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확대된 만큼 타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청년행복도시 고창을 알리는 데 힘껏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명예 청년군수 제 시행을 통한 청년 소통 창구 확대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명식기자

## 부안자봉센터, 백산면 소외계층 이동빨래방 서비스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과 17일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불세탁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해 구입한 대형세탁차를 통해 세탁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이불을 모아 세탁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매해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부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세탁봉사를 시작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원들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형아 백산면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복지나눔 관계망 형성사업을 활성화시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 및 시설과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주민과 함께하는 백산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